

죽어감에 대한 이해 2

이항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

4. 죽음은 필연성인가 우연성인가?

그런데 일상에서 쉽게 발견하듯 우리는 죽어 가는 이웃을 위로하면서도 그가 고유하게 겪어야 할 존재 가능성인 죽음을 은폐시키고 현존재성을 유지시키려한다. 하이텍거가 말하듯 그 위기의 순간을 전해줄이 사회 공공성의 평온을 깨기 때문인가?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멸에 대하여 공포를 갖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죽음을 은폐하는 데에는 평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죽음을 인정치 않으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단한 도피"임에 틀림이 없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우연성의 경험을 기꺼이 맞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의 내면 의식 현상을 밝히는 것은 존재자의 실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⁶⁾

하이텍거는 일상성이 죽음의 현존재의 존재양식과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주위에 나타난 죽음의 경험이 죽음에 대한 관심의 동기는 되지만 현존재가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죽음을 깨닫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죽음의 종말을 향하고 있는 일상의 현존재는 죽음의 확실성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분간은 염려 없다"는 말은 단순한 부정적 진술이 아니라 아직은 자기 자신에게 접근 가능하며 염려스러운 것으로 남아있는 것에 이르는 방향을 제시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죽음이 매순간 가능하

다는 가능성은 은폐되고 있다. 이는 시간의 무규정성의 회피이다.⁷⁾

그런데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개념은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가진 고유한, 다른 것과 관계하지 않는 확실한,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현존재의 무규정적인 앞질러 질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 규정이다.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로서 종말을 향하고 있는 이 존재자의 존재 속에 있는 것이다. 죽음을 향하고 있는 존재는 '염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던져져 있는 세계-속의-존재로서 현존재는 이미 자신의 죽음에 넘겨져 있다. 현존재는 자신의 명이 다할 때 까지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퇴락한 상태에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일종의 비본래적 존재로 되는 것이다.⁸⁾

마르쿠제가 잘 밝혔듯이 하이텍거가 인간의 현존재를 죽음의 예지(豫知)라고 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석인 존재론적인 긍정성을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한 배경에는 집단 수용소와 가스실의 설치로 말미암아 죽음의 정치적 기초가 마련된 데 있다고 본다.⁹⁾ 그러나 위기상황에 놓인 존재자는 현존재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회피한다면 왜 회피하는 것인지 그 의식의 배경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7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72쪽 참조.

8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73쪽.

9 Herbert Marcuse, The Ideology of Death, in H. Feifel(Ed.) The Meaning of Death, (N.Y. 1965), pp.64~76:『죽음의 철학』, 이인석 옮김, 청람, 1986, 108쪽.

6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51, 52(pp.252~260), 『죽음의 철학』, 이인석 옮김, 청람, 1986, 165쪽.

존재자는 죽어감을 알고 있지만 죽음을 염려하기 보다는 삶을 염려한다. 죽음을 의식하기 보다는 삶을 의식한다. 삶에 존재자의 실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도 삶에 드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나 노인이 아닌 경우에 일상엔 죽음을 의식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의식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점에서 죽음에 대한 그의 해석이 지나치게 사변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썬르트르가 말하듯 하이텍거가 죽음을 향한 존재(Sein zum Tod)로서 인간존재를 규정함은 현존재가 죽음을 향한 자기의 기도(企圖)를 결정하는 한에 있어서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자유를 실현하며 유한성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체로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¹⁰⁾ 여기 죽음을 내면화함이 우리자신의 의도에 봉사함이 있음은 인정이 되나 죽음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 관해서 밖에는 아무 것도 열어 보이지 못한다. 즉 사람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죽음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죽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썬르트르가 보기에 하이텍거는 현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죽음이 부여한 견줄 바 없는 개별성을 이용해서 '현존재'자체를 개별화한다. 현존재가 본래적인 현실 존재에 도달 할 것이며 일상적인 평범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대신할 수 없는 인격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최종적 가능성을 향하여 자신을 던질 수(기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그런데 썬르트르는 여기엔 하나의 순환성이 있고 죽음이 그 같이 개별성을 지니고 이 개별성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에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근

거 없는 주장으로 본다. (이상적인 인식주관)코기토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가능성은 그것이 본래적인 실존 속에서 파악되었건, 비 본래적인 실존 속에서 파악되었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될 수 없는 일이다. 하이텍거가 선언하듯 "현존재는 어느 때나 내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세계 안에서 나의 행위들을 (현실적인)기능적 관점에서, 효과의 관점에서, 그리고 결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타인은 언제나 내가 행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²⁾ 실제로 교화나 증언이나 조국을 위한 죽음처럼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죽음에 '나의 죽음'에만 특유한 종류의 인격 구성 능력이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란 내가 나를 이미 주체성의 관점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정황은 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하이텍거의 죽음의 개별적 현존성에 대한 썬르트르 비판에는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이 표출되어 있다. 전체주의 하에서는 개별성의 상실을 오히려 죽음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의 기대일망정 모든 기대의 부조리성이 열어 보여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 것"¹⁴⁾이 된다. 이때 죽음은 한 개인이 기다리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썬르트르는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두 가지 의미를 주의 깊게 구별하고 있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기대(각오)하고 있는 일(s'attendre à la mort)과 죽음을 기다리는 일(attendre la mort)은 다르다는 것이다. 나의 죽음의 가능성은 예견될 수 없는 장애 쪽에 있다. 따라서 기다릴 수 없다. 실로 노년에 있어서의 죽음과 장년이나 또는 청년에 있어서 우리를 소멸시키는 갑작스러운 죽음 사이에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갑작

10 Jean Paul Sartre, 『존재와 무』, 『죽음의 철학』, 손우성 옮김, 청람, 1986, 94쪽

11 Jean Paul Sartre, 앞의 책, 96쪽.

12 Jean Paul Sartre, 앞의 책, 97쪽.

13 Jean Paul Sartre, 앞의 책, 98쪽.

14 Jean Paul Sartre, 앞의 책, 99쪽.

스러운 죽음은 절대로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죽을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불확정적이고 정의상 그것을 어느 날의 일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노년의 죽음은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환자와 같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기다림 자체가 허무하거나 또는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물학적이거나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경우가 죽음을 결정짓는 요인은 결코 차이가 없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노년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연히 죽음을 결정지음으로써 그 죽음으로부터 조화로운 종말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삶의 기도의 중심에 놓인 끊임없는 죽음의 출현은 '나의' 가능성으로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게 그것은 모든 나의 가능성의 무화(無化)로서 파악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세계 안에서의 현전(現前)으로서 이미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인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능성들에 관한 언제나 가능한 하나의 무화이며 그 무화는 나의 가능성들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¹⁶⁾

사르트르는 하이텍저의 대척점에서서 현존재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죽음의 무화를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죽음은 나 자신의 가능성이기는 커녕 그것은 '하나의 우발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은 그러한 것인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근원적으로 나의 사실성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며, 나의 죽음을 기대하지도 못할 것이며, 나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의 태도를 취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발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것이며, 모든 기대들을 쓸데없게 하는 것이며, 모든 태도 속으로, 특히 자

기 죽음에 대해서 취하게 될 것인 태도 속으로 스며들어가며, 그런 태도들을 외면적이고 응고된 행위로 변화시켜서, 그 행위들의 의미를 영구히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고 타인들에게 맡겨지게 하는 것으로서 열어 보여 지기 때문이다.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순전한 사실이다. 죽음은 바깥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들을 바깥으로 변화시킨다. 사실을 말하자면 죽음은 탄생과 조금도 구별될 것이 없다. 우리가 사실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탄생과 죽음과의 동일성 그것이다."¹⁷⁾

이 서로 다른 죽음의 논증의 차이는 죽음과 유한성을 같이 보느냐 아니면 달리 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유한한 것은 죽음 때문인가에 대한 사르트르의 반문이다. 그에게 오히려 유한하다는 것은 자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자기를 기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행위는 유한성을 감당하는 일이고 유한성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로부터 나의 인생은 유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자유를 우선하는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존재론적 구조가 될 수 없다. 죽음이 자유를 한계 짓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며 선택의 이면으로서의 한계상황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의 여러 기도들에 장애가 될 수 없다.¹⁸⁾

5. 결론: 죽음을 서술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타인의 죽어감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죽어감을 의식함이 죽음에 대한 자유를 획득함이 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죽음의 문을 향해 서 있다. 그 문은 유일한 나의 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

15 Jean Paul Sartre, 앞의 책, 101쪽.

16 Jean Paul Sartre, 앞의 책, 102-103쪽 참조.

17 Jean Paul Sartre, 앞의 책, 120쪽.

18 Jean Paul Sartre, 앞의 책, 120쪽.

존성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가능성이 아니다. 타인이 그 문에 다가감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현존성을 일깨울 수는 있으나 죽음에 대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누구도 죽음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경험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감한다. 직관적으로 죽어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은 누구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에 저항할 수도 없다. 나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시간적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존재성 일깨우고, 자유를 일깨운다. 죽어감만이 현존한다. 그러므로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감에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하기 보다는 우리는 죽어감을 산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특별하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와 같은 인류의 스승이나 몇몇 위인들만이 의지적으로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살았음을 본다.

인간은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말미암아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안다. 생명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때 죽음은 자유의 한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 자체를 선택할 때 죽음은 자유를 스스로를 제한한다. 자유는 생명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상성이 삶의 현존성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현존성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삶은 현존성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사람은 이 세상에 피투되었으며 또한 초대되었다. 나의 의식이 이 정황을 결정짓는다. 죽음이 이 삶의 조건에 마지막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어떤 대답이 되든 자신의 받아들여야 할 대답일 뿐이다.

죽음을 알 수 없는 사실이 현존이며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 현존이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기에 사변이며 생명의 끝자락이기에 현존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에 통일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나

는 죽어가고 있다”고 진술할 수 있으나 “나는 죽었다”와 같이 나의 죽음에 관해 서술할 수 없다. 다만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서술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삶은 죽음의 해석이다. 삶이 죽음의 해석일 때 현존성을 피할 수 없다. 현존성은 자의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매일 새롭게 써가는 죽음에 대한 서술은 일상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의도적이지 않아 모순되지만 자연스럽다. 홀로 쓸 수 없는 서술조건은 죽음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사회화한다. 나의 죽음은 내가 홀로 조작할 수 없다. 삶이 사회적이듯 죽음도 사회적이다. 죽음은 몸의 마지막 사회적 상징이다. 이 상징을 나눌 수 없다면 개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살아 있는 자의 잠든 영혼을 마지막 까지 부른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죽음은 삶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하나의 사건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삶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을 깨워 살린다.

어떤 죽음도 무의미한 메시지가 아니다. 타인의 죽음은 병든 나의 삶을 일깨우는 메시지이다. 한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순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무지는 자신이 죽어감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수많은 생명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는데 있다. 죽음은 항상 남은 자를 살리는 죽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 사실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의 메시지는 마지막 부름이다.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주인의 말없는 부름이다. 그 죽음의 메시지에 답하는 것이 죽어감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죽음의 당사자와 그 죽음을 경험하는 내가 함께 쓰는 메시지가 생성된다. 이는 두 삶이 함께 쓴 삶과 죽음의 메시지이다. 죽어감의 나의 메시지이다.